	<b>일본 (도쿄) 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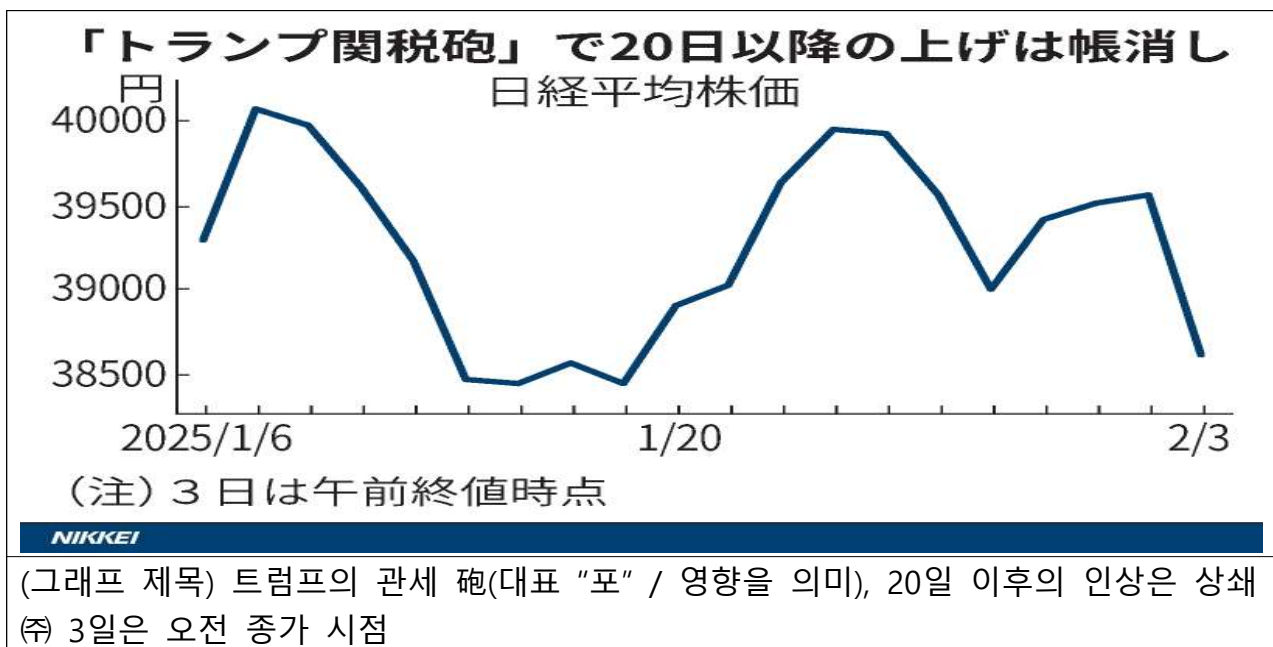
## CEPA Insight

- ① 트럼프 관세 영향, 닛케이 평균 지수 일시적으로 1,100엔 하락
- ② 일본경기 “회복 전망”이 5년 만에 10% 미만(기업 조사)

### ① 트럼프 관세 영향, 닛케이 평균지수 일시적으로 1,100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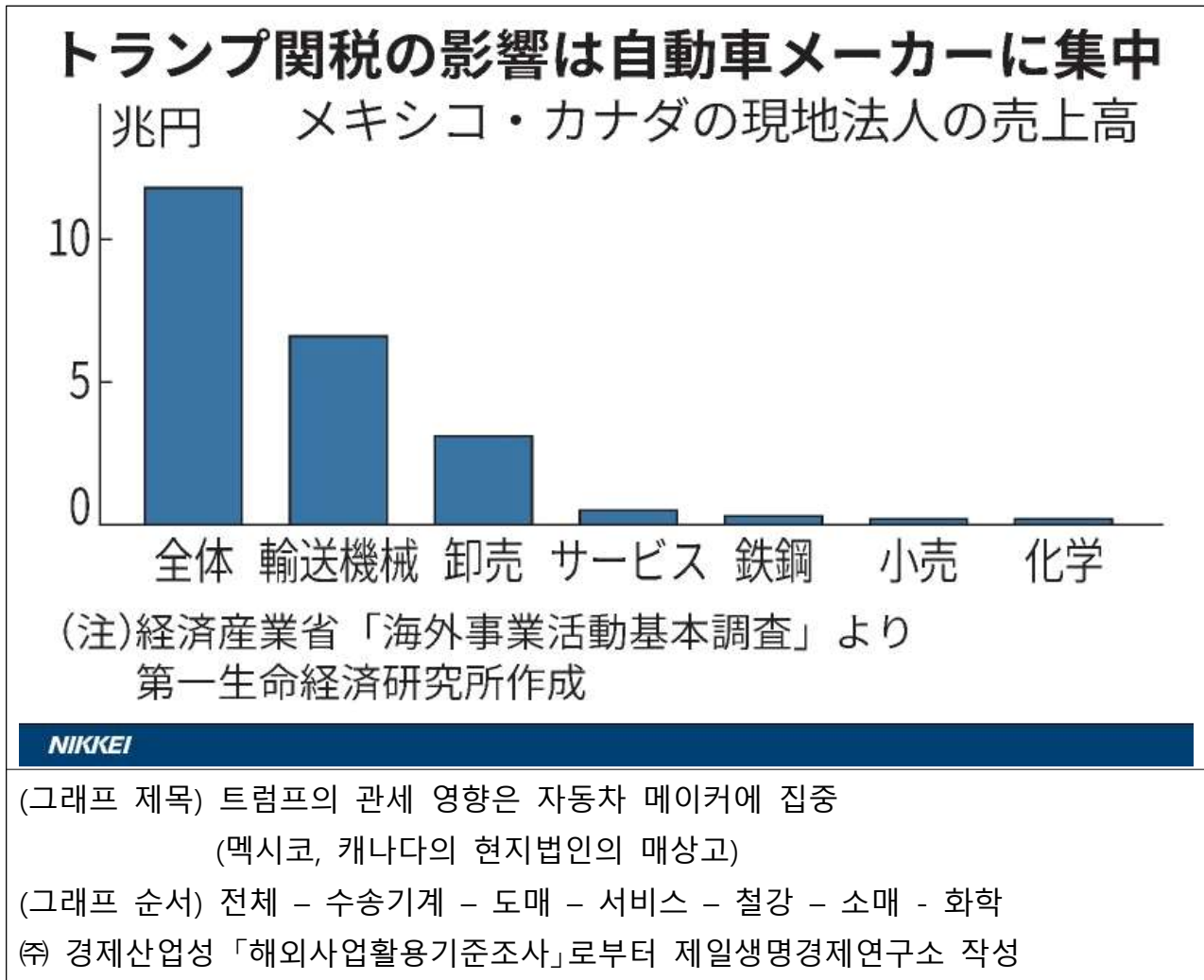
#### ○ 2025. 1. 3. 아침, 닛케이 평균 주가 급락

- 한때 지난 주말보다 1,100엔 이상 하락하기도 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시간) 멕시코 등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며, 특별히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꼽히는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식이 매도됨.
- 주식장은 959엔(2%) 내린 3만 8,612엔으로 마감함. 2024년 1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거래 시간 동안 닛케이 평균이 1,000엔 이상으로 떨어졌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2025년 1월 20일, 시장에 경종을 울렸던 글로벌 균일 관세 도입이 연기된 후에 닛케이 평균 지수는 한때 4만엔 안팎까지 올랐지만, 오늘의 하락으로 이전의 상승 폭은 거의 사라짐.



○ 미국의 관세 부과 진행 과정과 분석

- 미국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관세는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 요소일 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자산관리의 수석전략가 우에노 히로유키는 이날 오전 일본 시장을 휩쓴 혼란에 대해 설명.
- 시장에서는 2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내에서 관세 부과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3월 1일로 가동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짧게 보도했었음.
- 미 행정부는 2월 1일 저녁 백악관 대변인이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할 때까지 어떠한 외부 통신도 보내지 않았음. 골드만삭스는 "1월 31일 기준으로 막판 회피를 가정하고 관세가 부과될 확률을 약 20%로 추정 했다"고 밝힘.
- T&D자산운용의 나미오카 히로시 수석전략가는 "일본 주식은 세계 경제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으로서 매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오카산 증권사의 마쓰모토 후미오 수석전략가도 "일본 시장이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클 것"이라고 전망.
- 특히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짐. 북미 매출의 80%,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스바루 주가는 한때 6% 하락했고, 역시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쓰다의 주가는 한때 9% 하락함.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자동차 등 3대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은 지난 주말 이후 총 3조 2,000억엔이 사라졌음.



## ○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 다이이치 생명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마노 히데오(熊野秀夫)는 경제산업성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기초 조사(2022년도)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현지 기업을 분석함. 매출액은 멕시코에서 5조 2,000억엔, 캐나다에서 6조 6,000억엔으로 총 11조 8,000억 엔이었음. 업종별로는 운송기계가 6조 6,000억엔으로 56%를 차지해 단연 가장 많음.
- 쿠마노(熊野) 씨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부품을 보내 멕시코에서 가공·조립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음. 이러한 미래에 멕시코의 보복 관세는 부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주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쿠마노(熊野)가 밝힘.
- 추가 관세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며, JP모건증권도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을 북미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주식 목록을 제시함. 이 목록에는 수바루와 혼다 외에도 다케다 제약, 아스테라스 제약과 같은 제약회사 주식과 코마츠, 다이킨공업과 같은 기계주식을 포함한 광범위한 섹터가 포함됨.

- 미쓰이스미토모 신탁 자산운용의 우에노 씨는 "추가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면 세계 경제의 혼란이 불가피해 일본 증시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3일 오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아침에 멕시코, 캐나다와 관세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닷케이 평균 지수는 하락 폭을 좁힘. 그러나 관세의 "부과"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출처 : 니혼게자이 2025. 2. 3. 11:58 게재 기사)

## ② 일본경기 "회복전망"이 5년만에 10% 미만(기업 조사)

- 2024. 11. 18. ~ 2024. 11. 30, 전국 10,939개 회사 대상 경제 전망 설문조사(데이코쿠 데이터뱅크)
  - 2024년 일본경제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닷케이 평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평균 임금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성장기업의 견고한 실적 외에도 인바운드 수요와 인원 증가에 힘입어 실적을 유지한 관광업과 반도체, 자동차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제를 견인한 한 해였음.
  - 그럼에도, 2025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2023년 11월 조사보다 5.1% 하락한 수치를 보였음. 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진 것임. 응답자의 41.7%는 경기 활성화로의 '착륙단계(정체 국면을 포함)'라고 답해 2년 연속 40%를 넘어섬(전년도 보다는 0.4% 하락).
  - 반면, '악화 국면'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9%로 전년보다 3.6% 증가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26.7%로 나타남.

○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악화'의 확률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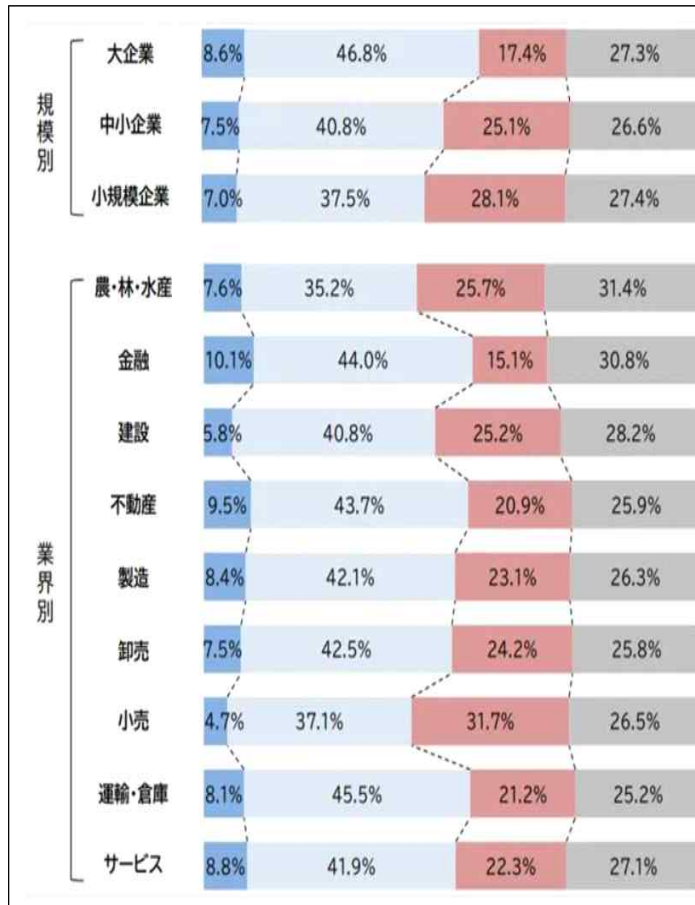
- '악화 국면'에 대한 기업 규모별 응답은 대기업이 17.4%로 중소기업 25.1%보다 7.7% 낮았으며, 기업규모가 축소될수록 '악화 국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회복기'에 대한 응답에서 금융이 10.1%를 차지해 10%를 넘는 유일한 업종으로 나타남. 이어 부동산 9.5%, 서비스 8.8%, 소매 4.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악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소매업이 31.7%로 가장 높았고, 농림수산이 25.7%, 건설이 25.2%, 금융이 15.1%로 그 뒤를 이음.

○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요인**

-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요인으로는 '원유·자재 가격 상승'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8 % 하락한 수치이며, 이어서 '노동력 부족' 응답자가 41.6%, 인플레이션이 31.5%, 환율이 30.7%로 전년 대비 6.7% 하락한 수치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하락 폭이 비교적 컸음.
- 일본은행이 2024년 7월에 정책금리 인상(조사 이후인 2025년 1월에도 인상)을 결정하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책 전환)로 인한 경기 악화 우려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조사 기관에서 분석함.

○ **경기 회복에 필요한 정책**

- 우선, '노동력 부족 해소'가 40.5%(전년보다 0.2% 하락)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최근에 이슈가되고 있는 '103만엔 장벽'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감세가 39.6%로 전년보다 6.5%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가 35.8%, 민간 소비 확대 대책 33.7%로 30%대를 보임.
- 회사 측면에서는 '지난해의 노동력 부족현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계속 요구되는 만큼 개인세 감면과 소비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힘.



기업별 - 대기업

- 중소기업

- 소규모기업

업종별 - 농림수산

- 금융

- 건설

- 부동산

- 제조

- 도매

- 소매

- 운수·창고

- 서비스

※ 그래프 순서

- 회복국면(파란색) → 착륙단계(연한 하늘색)

→ 악화국면(주황색) → 모르겠음(회색)

(출처 : HR프로 2025. 1. 6. 게재 기사)